

趙獻可의 《醫貫》 중 咳嗽論에 관한 研究

¹정동혁, ^{1,2}맹응재

¹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²한국전통의학연구소

A study on the "Ke Sou Lun" of 《Yi Guan》 of Zhao Xian Ke

¹Dong HyukJung, ^{1,2}Woongjae Meang

¹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²Research Center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is study was done to research "Ke Sou Lun" of 《Yi Guan》 of Zhao Xian Ke.

The results obtained as follows.

- 1) He suggested the treatment of chronic cough to strengthen 'Pitu' and 'Shenshui'.
- 2) He treated chronic cough patient without 'Qingjin' and 'Qinghuo' therapy that use cold herb.
- 3) We can strengthen 'Yang', after strengthen 'Zhenyin' in case of the chronic cough that contained 'Huo'.

I. 緒論

咳嗽은 呼吸器 疾患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症候中の 하나로 《內經·咳嗽論》에 최초로 언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醫書에서 언급되고 있다.¹⁾ 韓醫學 文獻에는 欬, 咳, 欬嗽, 咳嗽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²⁾ 서양의학에서는 기도청정을 위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방어반응을 기침이라 표현하고, 기관 및 기관지 자극이 그 원인이라 하였다.³⁾ 본 논문에서 研究하고자 하는 趙獻可는 明清代 溫補學派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內經》의 理論에 대한 깊이 있는 研究를 바탕으로 易水學派 의학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薛己의 의학을 높이 받들어 《醫貫》 6권을 저술하여 薛己의 脾胃, 命門學說을 자세히 밝혔는데, 그 중에서도 命門學說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研究를 하였다.⁴⁾ 이에 본 논문에서는 《醫貫》 중 咳嗽論을 研究하여 趙獻可의 咳嗽치료 원칙과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그의 의학 사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論

1. 咳와 嗽의 구분

“咳는 無痰而有聲을 말하고, 嗽는 有痰而無聲을 이른다.”⁵⁾

劉河間의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처음으로 咳와 嗽를 구분하였다. 肺氣가 傷하여 不清하게 되어 有聲하는 것을 咳라 하였고, 脾濕이 動하면 痰이 되기 때문에 有痰하는 것을 嗽⁶⁾라고 하였다. 趙獻可도 이 부분을 따라 咳와 嗽를 구분한 것이다.

그렇지만 《儒門事親》의 《咳分六氣母拘以寒述二十五》

1) 李珣九, 東醫肺系內科學, 도서출판 아트동방, 1996, p.105.

2) 金哈勳, 咳嗽의 原因에 대한 文獻的 考察, 동서의학, 1988, vol.13 no.2 p.57.

3) 韓鏞徹, 臨床 呼吸器學, 一潮閣, 1991, p.46.

4) 陣大舜, 各家學說中國篇, 대성의학사, 2004, p.318.

5) “咳爲無痰而有聲 嗽是有痰而無聲” 《醫貫》趙獻可, 도서출판정담, 1993, p.60.

6) “咳爲無痰而有聲 肺氣傷而不清也 嗽是無聲而有痰 脾濕動而爲痰也” 《素問病機氣宜保命集》河間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72.

접수▶2010년 9월 2일 수정▶2010년 9월 16일 채택▶2010년 9월 20일
교신저자▶맹응재,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63-850-6838 FAX 063-850-6838 E-mail chundam@wonkwang.ac.kr

에서는 咳와 嗽은 하나의 證이라고 반론을 하기도 하였다. “後人들이 嗽은 陽으로, 咳는 陰으로 여기는 것은 역시 근거가 없다. 또한 《內經咳嗽論》에는 오로지 咳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그 중 嗽라는 글자는 없다. 이로 보아 咳는 嗽이고, 嗽는 咳이다. 《陰陽應象大論》‘秋傷於濕, 冬生咳嗽’, 《五藏生成篇》‘咳嗽上氣’, 《診要經終》‘春刺肺分, 環爲咳嗽’, 《示從容篇》‘咳嗽煩寃者, 腎氣之逆也’라 하여 이상과 같이 《素問》에는 오직 네 부분에서만 咳嗽을 연결하여 말하고 기타 편에서는 다만 咳를 이야기하고 嗽를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곧 咳嗽은 한 가지 證임을 알 수 있다.”⁷⁾라고 하였다.

2. 咳嗽의 치료에 있어 脾, 腎의 중요성

“비록 六腑와 五臟이 나누어져 다름이 있더라도 그 중요함은 모두 肺에 있다. 대개 肺는 淸虛之府이다. 一物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肺는 연약한 장기이다. 熱과 寒을 두려워한다. 火가 金을 克하면 嗽가 된다. 水가 冷하여 金을 寒하게 하면 역시 嗽한다. 따라서 咳嗽은 반드시 肺에 책임이 있지만, 그 치료하는 방법은 肺에 있지 않고 脾에 있고, 오로지 脾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腎에 중요함이 있다. 대개 脾는 肺의 母이고, 腎은 肺의 子이다. 그러므로 虛則補其母하고, 虛則補其子한다.”⁸⁾

위 내용은 趙獻可의 해수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말하고 있다. 咳嗽가 발생되는 것은 肺이지만,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脾와 腎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景岳全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肺는 淸虛의 臟이다. 일반적으로 金이 火刑을 받으면 기침을 하고 金寒 水冷해도 역시 기침을 하니 이처럼 咳嗽은 당연히 肺를 치료해야 한다. 肺金의 虛는 대부분 腎水의 고갈로 인하는데 바로 ‘子令母虛’하기 때문이다.”⁹⁾

3. 發散表邪, 溫肺化痰을 통한 外感咳嗽 實症의 치료

“外感風寒咳嗽者는 麻黃, 枳殼, 紫蘇로 發散表邪한다. 表를 따라 들어온 邪氣가 스스로 表에서 나간다는 것을 이른다. 만일 形氣와 病氣가 모두 實한 자는 땀을 내면 낫는다.”¹⁰⁾

外感風寒에 있어 形氣와 病氣가 실한 자의 實症치료는 發

散表邪의 치료원칙을 따랐다.

《丹溪心法》에 “咳嗽가 風寒으로 발생하면 行痰하고 腠理를 열어야 하니 二陳湯에 麻黃, 杏仁, 桔梗을 가하여 痰飲을 쫓고 담을 내리는데 證에 따라 藥을 加減한다.”¹¹⁾라고 하였다. 또한 《丹溪手鏡》에는 “風寒으로 병이 된 것은 肺가 주관하고 肺는 皮毛를 주관하니 肺가 상하면 腠理가 성글어지고 風寒이 肺에서 內鬱하면 淸肅之氣가 利하지 아니하여 痰이 生하고 嗽가 動한다. 또한 찬 음식이 胃로 들어가 脾脈을 따라 肺로 올라가면 肺寒이 되고 內외의 邪가 서로 相合되기 때문에 咳가 된다.”¹²⁾고 하였다.

《儒門事親》에서는 “風咳는 通聖散에 半夏, 大人 藜半夏丸을 쓰며 심한 경우에는 發汗시킨다. 寒咳는 寧神散, 寧肺散으로 치료하고 寒痰이 상부에 있는 자는 果蒂散으로 吐하게 한다.”¹³⁾라고 하였다.

薛己의 《內科摘要》에는 “봄철에 風寒의 邪氣에 손상을 입어 咳嗽, 聲重, 頭痛하면 金沸草散을 쓴다. 咳嗽聲重, 身熱頭痛하면 消風散을 쓴다. 또한 겨울철에 風寒의 邪氣를 外感한 경우, 形氣와 病氣가 모두 實하면 麻黃湯을 써야 하는데, 이른바 表에서 들어오면 表를 통해 내보낸다는 것이다.”¹⁴⁾라고 하였다.

7) “咳與嗽一證也 後人或以嗽爲陽咳爲陰 亦無考據 此內經咳論一篇純說咳也 其中無嗽字 由是言之 咳卽嗽也嗽卽咳也 陰陽應象大論云 秋傷於濕冬生咳嗽 又五藏生成篇云 咳嗽上氣 又診要經終云 春刺秋分環爲咳嗽 又示從容篇云 咳嗽煩寃者腎氣之逆也 素問惟以四處連言咳嗽其餘篇中止言咳不言嗽 乃知咳嗽一證也” 《儒門事親》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72.

8) “雖分六腑五臟之殊 而要皆主于肺 蓋肺爲淸虛之府 一物不客 毫毛必咳 又肺爲嬌臟 外熱外寒 火刑金故水 水冷金寒亦嗽 故咳嗽者 必責之肺 而治之之法 不在于肺 而在于脾 不專在脾 而反歸重于腎 蓋脾者 肺之母 腎者 肺之子 故虛則補其母 虛則補其子也” 《醫貫》趙獻可, 도서출판정담, 1993, p.60.

9) “肺屬金 爲淸虛之臟 凡金被火刑則爲嗽 金寒水冷亦爲嗽 此咳嗽所當治肺也 多由腎水之涸 正以子令母虛也” 《景岳全書》, 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3.

10) “如外感風寒而咳嗽者 今人率以麻黃枳殼紫蘇之類 發散表邪 謂從表而入者 自表而出 如果系形氣病氣俱實者 一汗而愈” 《醫貫》趙獻可, 도서출판정담, 1993, p.60.

11) “風寒行痰開腠理 用二陳湯加麻黃桔梗杏仁 逐痰飲降痰 隨證加藥” 《丹溪心法》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p.257.

12) “風寒爲病主乎肺 以肺主皮毛而司於外 傷之則腠理不疎 風寒內鬱於肺 淸肅之氣不利 而生痰動嗽 又寒飲食入胃 從脾脈上至於肺則肺寒 內外相合邪因而嗽之” 《丹溪手鏡卷之下》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1073.

13) “風之嗽 治以通聖散加半夏 大人 藜半夏丸 甚者汗之 寒之嗽治以寧神散寧肺散 有寒痰在上者 以瓜蒂散越之” 《儒門事親》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74.

14) “春月若因風寒所傷 咳嗽聲重頭痛用金沸草散 咳嗽聲重身熱頭痛 用局方消風散 冬月風寒外感 形氣病氣俱實者 宜用麻黃湯之類 所謂自表而入 自表而出”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

“金匱에서 말하길 咳嗽하면서 上氣증상이 있고 喉中에 개구리의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射干麻黃湯¹⁵⁾으로써 치료한다. 이것은 外感を 논한 것이다.”¹⁶⁾

金匱의 한 부분이다. 이 조문의 ‘咳而上氣’는 咳嗽, 氣逆而喘의 증상을 포괄하고 있다. 내용으로 볼 때 ‘咳而上氣’, ‘喉中水鷄聲¹⁷⁾’의 특징이 있기에 邪實症으로 볼 수 있다. 처방은 溫肺化痰을 주로 하는 射干麻黃湯을 사용하였다.

《景岳全書》에도 溫肺하는 처방이 나와 있는데 “外感의 嗽는 四時를 막론하고 반드시 모두 寒邪로 인한다. 대개 寒邪가 계절의 기운을 따라 肺中에 침입하므로 咳嗽가 생기는데, 단지 辛溫으로 치료하면 그 邪氣는 저절로 흩어지니 六安煎加生薑이 가장 좋다. 일반적으로 外感에 속하면 전부 우선 이 처방에 가감하여 치료해야 한다.”¹⁸⁾라고 하였다.

4. 補脾를 통한 外感咳嗽 虛症의 치료

“形氣와 病氣가 약한 자는 마땅히 補脾를 위주로 해야 하고 解表藥으로 도와야한다. 그 이유는 肺는 皮毛를 주관하므로 허함이 있다면, 곧 주리가 밀하지 않으면 風邪가 쉽게 들어온다. 만약 肺가 허하지 않으면 邪氣가 어떻게 따라서 들어오겠는가? 옛 사람들이 蔘蘇飲 중 반드시 蔘을 넣어 만든 이유이다. 桂枝湯 중 芍藥, 甘草는 解表하는 중 實脾를 겸하기 위함이다. 脾가 實하면 肺金을 기를 수 있다. 皮毛가 지킴이 있으면 이미 들어온 邪氣가 쉽게 나가고 후에 오는 邪氣는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解表를 먼저 하였다면 肺氣가 더욱 허해지고, 腠理가 더욱 성글어져 外邪가 乘하여 邪氣가 들어온다. 人蔘, 黃芪, 甘草로서 補脾하고 겸하여 桂枝로서 邪氣를 몰아낸다. 이것이 不治肺하고 治脾한다는 것이다. 虛則補其母한다는 의미이다.”¹⁹⁾

形氣와 病氣가 허한 자의 치료원칙은 虛則補其母로서 補脾하여 肺를 實하게 함으로 皮毛를 통해서 邪氣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만약 잘못하여 허한 자를 解表하여 肺氣가 더욱 허해졌다면 이것 또한 補脾하여 치료한다는 것이다. 虛則補其母의 원칙을 강조 하였다.

薛己의 《內科摘要》에는 “대개 肺는 皮毛를 주관하므로 肺氣가 虛하면 腠理가 緻密하지 못해 風邪가 쉽게 침입하니, 처방은 行하면서 肺氣를 實하게 해야 한다. 肺에 火가 있으면 腠理가 단하지 않아 風邪가 외부에서 침입하니, 치

법은 解表하면서 肺火를 淸해야 邪氣가 물러나 그친다. 하지만 몇 차례 解散시키면 津液을 손상하고 邪氣가 鬱結되어 肺疽, 肺痿가 생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肺가 邪氣를 받아 輸化할 수 없어 小便短少, 皮膚漸腫, 咳嗽日增하면, 六君子湯으로 補脾肺하고 六味丸으로 滋腎水해야 한다. 겨울철에 風寒의 邪氣를 입고 平氣와 病氣가 모두 虛하면, 그 元氣를 補하면서 解表하는 藥으로 도와야 한다. 단지 解表만 한다면 肺氣는 점차 虛해지고 腠理는 더욱 성글어져 外邪가 虛를 틈타 쉽게 침입하여 病이 심해져 나가기 어렵다.”²⁰⁾라고 하였으니 위 내용으로 보아 趙獻可가 薛己의 학설을 이어받았고, 虛症의 外感咳嗽에 補脾를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脾土虛에 水冷金寒을 겸한 증상을 補脾肺와 補土母로서 치료

“脾胃가 먼저 虛하면, 土虛가 되어 水를 제어하지 못하고 水가 넘쳐서 痰이 된다. 子가 母를 乘하여 咳嗽가 된 것이다. 또한 초기에 心火가 金을 克하는 일이 있어, 寒冷한 약을 잘못 먹으면 脾土가 손상 받게 된다. 脾土가 손상 받으면 肺는 더욱 허해지고 咳嗽가 난다. 寒冷한 약으로 인해 火는 더욱 작아지고 水氣가 承하여, 腎水가 火를 보복하게 되는데 寒水가 木의 세력을 끼고 위로는 脾胃를 침범한다. 따라서 水冷,

15) “射干三兩 麻黃四兩 生薑四兩 細辛三兩 紫菀三兩 款冬花三兩 五味子半升 大棗七枚 半夏半升 右九味 以水一斗二升 先煮麻黃兩沸 去上沫 內諸藥 煮取三升 分溫再服” 《仲景全書》，대성문화사, 1984, p.354.

16) “金匱云 咳而上氣 喉中水鷄聲 射干麻黃湯主之 此論外感” 《醫貫》趙獻可, 도서출판경담, 1993, p.62.

17) “氣道에 飲이 막혀있고 氣가 그것을 떨리게 하므로 목에서 痰鳴聲이 나타나는데, 꼭 개구리가 우는 소리와 같이 계속 이어져 끊이지 않아서 水鷄聲이라 하였다. 《金匱要略·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并治》，高泳商, 대전대학교, 2004, p.59.

18) “外感之嗽 無論四時 必來因於寒邪 蓋寒隨時氣入客肺中 所以致嗽 但治以辛溫 其邪自散 惟六安煎加生薑爲最妙” 《景岳全書》，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3.

19) “若形氣病氣稍虛者 宜以補脾爲主 而佐而解表之藥 何以故 蓋肺主皮毛 惟其虛也 故湊理不密 風邪易以入之 若肺不虛 邪何從而入耶 古人所以制蔘蘇飲中必有蔘 桂枝湯中有芍藥甘草 解表中兼實脾也 脾實則肺金有養 皮毛有衛 已入之邪易以出 後來之邪 無自而入矣 若專以解表 則肺氣益虛 湊理益疏 外邪乘間而來者 何時而已耶 須以人蔘黃芪甘草以補脾 兼桂枝以驅邪 此予謂不治肺而治脾 虛則補其母之義也” 《醫貫》趙獻可, 도서출판경담, 1993, p.60.

20) “蓋肺主皮毛 肺氣虛則腠理不密 風邪易入 治法當解表兼實肺氣 肺有火則腠理不閉 風邪外乘 治宜解表兼淸肺火 邪退則止 若數行解散則重亡津液 邪蘊而爲肺疽肺痿矣 故凡肺受邪不能輸化 而小便短少 皮膚漸腫 咳嗽日增者 宜用六君子湯以補脾肺 六味丸以滋腎水 若形氣病氣俱虛者 宜補其元氣以佐以解表之藥 若專於解表 則肺氣益虛 腠理益疏 外邪乘虛易入 病愈難愈矣” 《薛立齋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

金寒으로 咳嗽가 된다. 앞의 병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병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뜻을 알지 못하고 치료했기 때문이다. 痰火조차 제거하기 어려운데 寒冷을 배로 늘려냈으니 어찌 위태롭지 아니한가? 바로 六君子湯에 炮薑을 넣어서 補脾肺하고, 八味丸으로 補土母하여, 水를 歸元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咳嗽를 치료하는 법이다.”²¹⁾

脾土虛로 인해서 水가 넘쳐 痰이 되었는데, 火를 내리겠다 고 寒冷한 藥을 잘못 사용하여 病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을 때의 치료방법을 이야기 하였다. 병의 근본이 되었던 脾와 肺를 補하고 八味丸으로 補土母하여 腎水를 歸元으로 이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劉河間은 《保童必要》에서 “咳嗽의 치법에 있어서 治痰이 우선이며 治痰은 下氣하는 것이 上法이다. 南星, 半夏로써 그 痰을 勝하면 咳嗽가 스스로 낮고 枳殼, 陳皮로써 그 氣를 원활하게 하면 痰은 스스로 제거된다. 痰이 있으며 먹을 수 있는 자는 大承氣湯으로 약간 瀉下시키되 泄瀉가 약간 나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痰이 있으며 먹을 수 없는 자는 厚朴湯으로 치료한다.”²²⁾고 하여 咳嗽에 治痰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張景岳은 河間의 治痰이 우선이고 下氣, 順氣하여 咳嗽을 치료한다는 논리를 지적하고 있다. “外感의 嗽는 반드시 風寒의 邪氣로 인하니 肺에 風寒의 邪氣가 있으면 肺氣가 不清하므로 기침을 일으키고 기침이 일어난 이후에 痰을 動하게 하니, 痰嗽의 근본은 風邪로 外感에 근본이 있는 것이지 外感의 근본이 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內傷의 嗽는 반드시 陰虛로 인하니 陰虛로 水潤金枯하여 기침을 일으키고, 脾虛腎敗하여 化痰이 된다. 이는 陰虛가 痰嗽의 근본으로 內傷에 근본이 있는 것이지 內傷이 痰에 근본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外感의 嗽를 치료할 때는 二陳湯이 효과가 좋은 이유는 南星, 半夏, 生薑, 陳皮, 枳殼 등이 모두 辛味로서 辛味는 肺로 들어갈 수 있어 寒邪를 發散시키므로 痰嗽가 낮게 된다.”²³⁾라고 하여 外感의 경우 痰의 근본은 風邪이고 內傷의 경우 痰의 근본은 陰虛이므로 風邪와 陰虛로서 痰이 있는 咳嗽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景岳全書》에 “脾胃의 土虛로 生金할 수 없어 邪氣가 풀리지 않으면 六君子湯으로 脾肺를 補해야 한다. 脾虛하여 制水를 할 수 없어 水가 넘쳐서 痰이 되면 理中湯이나 理陰煎, 八味丸으로 土母를 補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좋은 방법이다.”²⁴⁾라고 하여 脾土虛에 補脾肺의 치법을

사용하고 水가 넘쳐 痰이 되면 八味丸을 사용하여 土母를 補한다고 하였다.

6. 咳嗽를 치료함에 腎水의 중요성

“仁齋直指에서 말하길, 肺는 出氣, 腎은 納氣한다. 肺는 氣의 主, 腎은 氣의 本이다. 咳嗽가 심해져 온 몸의 뼈를 당기고, 氣가 臍下에서 위로 치밀어 상역함을 느끼는 것은 腎虛로 氣를 수렴하여 근원으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地黃丸, 安腎丸을 위주로 치료하고 절대 함부로 肺를 치료해선 안 된다. 이것이 虛則補其子의 의미이다.”²⁵⁾

“五行之間에는 오직 肺와 腎, 二臟이 있으니 母盛하면 子가 邪氣를 받는다. 그 이유는 肺는 氣를 주관하는데 肺에 熱이 있으면, 氣가 熱을 얻어 위로 올라가 끊게 되어, 아래에 있는 腎을 생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腎이 邪氣를 받는다. 腎이 邪氣를 받으면 肺는 더욱 병이 든다. 그 이유는 대개 母는 子宮에 간직되고 子는 母胎에 숨는다. 肺金의 기운은 밤에 누우면 腎水之中에 간직된다. 心火의 邪氣를 받은 肺가 아래로 내려와 水中에 들어가면 腎水는 마르고 火가 있게 되어 容納할 곳이 없게 된다. 이것이 다시 위로 가서 병이 된다.”²⁶⁾

위 내용은 仁齋直指를 인용한 부분이다. 咳嗽에서 腎虛로 納氣하지 못할 때에는 肺를 치료하지 말고 腎虛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楊仁齋의 논한 것에 趙獻可가 자세히 뜻을 밝히고

21) “有脾胃先虛 土虛不能制水 水逸爲痰 子來乘母而嗽者矣 又有初雖起于心火刑金 因誤服寒涼 以治脾土受傷 肺益虛而嗽者 乃火位之下 水氣承之 子來救母 腎水復火之仇 寒水挾木勢而上侵于肺胃 水冷金寒故嗽 前病未除 新病愈甚 粗工不達此義 尙謂痰火難除 寒涼倍進 豈不殆哉 期時也 須用六君子湯加炮姜 以補脾肺 八味丸以補土母 以引水歸原 此等治咳嗽之法” 《醫貫》趙獻可, 도서출판경담, 1993, p.62.

22) “咳嗽者 治痰爲先 治痰者 下氣爲上 是以南星半夏 勝其痰以 咳嗽自愈 枳殼陳皮利其氣而痰自除 痰而能食者 大承氣湯微下之 少利爲度 痰而不能食者 厚朴湯治之” 劉河間 《保童必要》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325.

23) “蓋外感之嗽 必因風寒 風寒在肺則肺氣不清 所以動嗽 動嗽然後動痰 此風邪痰嗽之本 本於外感 非外感本於痰也 又如內傷之嗽 必因陰虛 陰虛則水潤金枯 所以動嗽 脾虛腎敗 所以化痰 此陰虛化痰之本 本於內傷非內傷本於痰也” 《景岳全書》, 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7.

24) “脾胃土虛不能生金 以邪不能解 宜六君子湯以補脾肺 或脾虛不能制水 泛而爲痰 宜理中湯 或理陰煎 八味丸之類以補土母 皆良法也” 《景岳全書》, 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1.

25) “仁齋直指云 肺出氣也 腎納氣也 肺爲氣之主 腎爲氣之本 凡咳嗽暴重 動引白骸 自覺氣從臍下逆奔而上者 此腎虛不收氣歸元 當以地黃丸安腎丸主之 母徒從邪于肺 此虛則補子之義也” 《醫貫》趙獻可, 도서출판경담, 1993, p.62.

26) “余又有說焉 五行之間 惟肺腎二臟 母盛而子宮受邪 何則 肺主氣 肺有熱 則氣得熱而上蒸 不能下生于腎 而腎受邪矣 腎既受邪 則肺益病 此又何也 蓋母藏子宮 子隱母胎 凡人肺金之氣 夜臥則歸藏于腎水之中 今因肺受心火之邪 欲下避水中 而腎水乾枯有火 無可容之地 于是復上而病矣” 《醫貫》趙獻可, 도서출판경담, 1993, p.62.

있다. 肺가 火를 얻으면 腎水가 더욱 마르게 되고, 腎水가 마르게 되면 肺가 더욱 熱을 얻게 되는 악순환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腎水の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전을 설명한 것이다.

《景岳全書》에 “일반적으로 內傷의 咳는 반드시 모두 陰分을 근본으로 한다. 陰分이란 무엇인가? 바로 五臟의 精氣이다. 한편, 五臟에 모두 精氣가 있지만, 특히 腎은 元精의 本이 되고, 肺는 元氣의 主가 되므로 五臟의 氣分에 손상이면 병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 肺와 脾로부터 腎에 전해지고, 五臟의 精分에 손상이면 병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 腎과 脾로부터 肺로 전해진다. 따라서 上部를 치료하려면 上部가 아닌 下部를 치료하고, 下部를 치료하려면 下部가 아닌 上部를 치료한다. 氣中에 精이 있고, 精中에 氣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²⁷⁾고 하였다. 肺와 腎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7. 金實, 金破 모두 치료의 근본은 腎水

“咳嗽하고 말을 못하는 것은 대개 金實하여 不鳴하지만, 또한 金破하여 不鳴하기도 한다. 實한즉 淸하게하고, 破한즉 補한다. 모두 肺를 치료하면 된다. 또한 少陰之絡은 肺中으로 들어가서 喉嚨을 돌아서 舌本을 挾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肺는 標가 되니 本虛하면, 곧 標가 약해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목이 쉬게 된다. 또한 舌이 마르면 소리가 나오기 어렵다. 출처는 仲景傷寒書.”²⁸⁾

肺의 病을 논하는데 足少陰腎經의 循行徑路를 말한 이유는 결국 腎命門이 肺의 根本이 되어 虛하게 되면 肺, 咽喉의 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결국 肺實證, 肺虛證 모두 근본을 腎命門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의 출처인 《景岳全書》를 자세히 보자면 “金實이란 肺中에 邪氣가 있기 때문인데, 寒邪 아니면 火邪이고, 金破란 眞陰에 손상을 받았기 때문인데, 氣虛 아니면 精虛이다. 寒邪가 있으면 辛溫해야 하고, 火邪가 있으면 甘淸해야 하며, 氣虛이면 補陽해야 하고, 精虛하면 補陰해야 한다”²⁹⁾고 하였다. 또한 “五臟의 精은 모두 腎에 저장되고 足少陰腎經은 腎上을 따라 肝膈을 뚫고 肺中에 들어가 喉嚨을 돌아 舌本을 끼고 돈다. 따라서 肺金의 虛는 대부분 腎水의 고갈로 인하는데 바로 ‘子令母虛’하기 때문이다.”³⁰⁾라고 하였다.

8. 火가 있는 咳嗽의 치법에서 淸金降火는 皮함

“火가 있는 肺金의 咳嗽는 마땅히 淸金降火를 해야 한다고 醫書에 나와 있다. 淸金降火를 논하는 자는 黃芩, 天麥冬, 桑白皮로서 肺金을 맑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黃蓮으로 心火를 내리고 石膏로 胃火를 내린다. 四物湯에 黃柏, 知母로 陰火를 내린다. 陰에 傷하여 泄瀉하는 것은 枳殼, 半夏로 말리고, 貝母, 瓜蒌, 竹瀝, 枇杷葉으로 潤肺하고 化痰한다. 이상의 치법이 어찌 평정하고 통달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혀 淸金降火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치료해야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³¹⁾

朱丹溪은 《金匱鉤玄》에서 “火이면 기침소리가 있고 痰少하고 面赤하니 降火, 淸金, 化痰한다.”³²⁾고 하였다.

張子和는 《儒門事親》에 “火가 肺를 乘하면 기침하고 숨이 차고 涕唾에 피가 나오며 심한 자는 七竅로 出血하니, 黃連解毒湯, 洗心散, 三黃丸으로 치료하고 심한 자는 鹹寒한 味를 더하여 大下한다.”³³⁾라고 하였다.

薛己는 《內科摘要》에서 “여름철에 心火가 肺를 침범한 경우 輕하면 麥門冬湯을 쓰고, 重하면 人蔘平肺散을 쓴다. 上焦의 實熱에는 涼膈散을 쓰고, 虛熱에는 六君子湯을 쓴다. 中焦의 實熱에는 竹葉石膏湯을 쓰고, 虛熱에는 竹葉黃芪湯을 쓴다. 下焦의 虛熱에는 六味丸을 쓴다.”³⁴⁾고 하였다.

27) “凡內傷之嗽 必皆本於陰分 何爲陰分 五臟之精氣是也 然五臟皆有精氣 而又惟腎爲元精之本 肺爲元氣之主 故五臟之氣分受傷 則病必自上而下 由肺由腎以極於腎 五臟之精分受傷 則病必自下而上 由腎由脾以極於肺 知氣中有精 精中有氣” 《景岳全書》，張介賓，한미의학, 2006 p.853.

28) “有嗽而聲啞者 蓋金實不鳴 金破亦不鳴 實則淸之 破則補之 皆治肺之事也 又須知少陰之絡入肺中 循喉嚨 挾舌本 肺爲之標 本虛則標弱 故聲亂咽嘶 舌萎聲不能前 出仲景傷寒書” 《醫貫》趙獻可, 도서출판정담, 1993, p.62.

29) “金實者 以肺中有邪 非寒邪卽火邪也 金破者 以眞陰受損 非氣虛卽精虛也 寒邪者宜辛宜溫 火邪者宜甘宜淸 氣虛者宜補陽 精虛者宜補陰” 《景岳全書》，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4.

30) “蓋五臟之精皆藏於腎 而少陰腎脈從腎上貫肝膈 入肺中循喉嚨挾舌本 所以肺金之虛 多由腎水之涸 正以子令母虛也.” 《景岳全書》，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3.

31) “有火燥肺金而咳嗽者 宜淸金降火 今之醫書中 論淸金降火者 以黃芩天麥冬桑白皮淸肺金 以黃蓮降心火 石膏降胃火 以四物湯黃柏知母降陰火 謂枳半燥泄傷陰 易用貝母瓜蒌竹瀝枇杷葉以潤肺而化痰 已上治法 豈不中正通達耶 殊不知淸金降火之理 似是而實非” 《醫貫》趙獻可, 도서출판정담, 1993, p.61.

32) “火者 有聲痰少 面赤者是也 降火淸金化痰” 《金匱鉤玄》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18.

33) “火乘肺者 咳嗽上雍 涕唾出血 甚者七竅血溢 治以黃連解毒湯 洗心散 三黃丸 甚者加以鹹寒大下之” 《儒門事親》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1995, p.573.

위와 같이 實症의 咳嗽은 淸金이나 淸火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고, 虛症의 咳嗽도 火가 있는 咳嗽의 치법은 治本에 겸하여 降火하는 치법이 대부분이었다. 해수치료에 있어서 趙獻可와 같이 虛實을 막론하고 淸火와 淸金을 완전히 배제한 치법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北方을 보하면 南方이 瀉해진다. 陰을 滋養하면 곧 降火된다는 것이다. 단지 玄子の 壯水之主를 깨닫지 못하고 陽光을 제어했을 뿐이다. 나의 相火論은 滋陰降火論에 있다. 상세히 말하자면 寒涼한 藥을 입히는 黃柏, 知母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³⁵⁾

滋陰을 하게 되면 따로 降火를 하지 않더라도 火가 저절로 내린다는 것이다. 억지로 火를 제어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기니, 寒涼한 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景岳全書》에 “환자가 氣體가 柔弱한데도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이미 마음을 정하고, 發熱이 보이면 바로 火症, 咳嗽가 보이면 바로 勞症으로 인식하여 表裏를 분명히 하지도 않은 채 降火의 처방을 사용한다. 이는 寒邪가 表에 있다면 寒涼을 함부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외부에 寒邪가 있는데 다시 내부에 寒을 얻으면 表裏의 邪氣가 합해져 반드시 邪氣가 머물러 풀리지 않아 오래도록 낫지 않고 날로 심해진다.”고 하여 景岳도 寒涼한 藥을 쓸 때는 신중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9. 眞陰이 손상된 咳嗽은 金水相生之法으로서 치료함

“王節齋가 말하기를, 무릇 酒色이 과도하면 肺腎眞陰을 손상 받으니 人蔘과 黃芪를 복용하지 말라. 과도하게 복용하면 죽는다. 대개 陽이 왕성해짐을 두려워하다 陰이 없어지게 되었다. 내가 이에 대해 말하려한다. 세상의 陰虛咳嗽의 치법에는 人蔘과 黃芪를 毒으로 보고 黃柏, 知母를 靈驗한 것으로 여긴다. 이런 증상의 환자에게 이 약을 먹이면 백명 중 한명도 살지 못한다. 매우 슬픈 일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약을 먹이지 않았다면 반대로 생을 연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³⁶⁾

여기서는 王節齋의 예로서 陽이 왕성해질까 두려워 人蔘, 黃芪를 쓰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있다. 陽이 왕성해짐을 두려워하기보다 陰이 없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陰虛에 나타나는 火때문에 무조건 人蔘, 黃芪를 피할 것이

아니라 眞陰을 補한 후 人蔘, 黃芪는 補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다.

《景岳全書》에 “咳嗽하는 사람이 氣體가 허약하면 邪氣藥은 대부분 효과가 없고, 간혹 효과가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발작한다. 이런 경우는 補益하면 咳嗽가 저절로 낫는다. 氣體가 건강한 사람이 外感과 관련된 경우라면 모두 邪氣를 發散하고 滯氣를 뚫으면 咳嗽은 저절로 안정된다. 얼마 되지 않은 咳嗽은 實症의 치료를 따르고, 오래된 咳嗽은 虛症의 치료를 따른다.”³⁷⁾ 무조건 陽旺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實症과 虛症을 구별하여 虛症에는 補益하는 처방을 사용해야 함을 이야기 하였다.

“대개 병의 근본은 房勞太過에서 일어나니, 眞陰이 손상되면 陰虛하여 火가 위로 올라가니, 火가 위로 올라가면 곧 金을 克하여 咳嗽가 일어난다. 咳嗽이 일어난즉 金이 傷하여 일어난 것이다. 먼저 六味地黃類의 壯水之主藥으로 眞陰을 補하면 水가 올라가서 火를 내리게 한다. 그리고 즉시 人蔘, 黃芪로서 腎의 母인 肺를 구한다. 金水を 相生하면 病은 쉽게 낫는 것이다. 세상에서 寒涼藥을 쓰는 것은 이해가 깊지 못한 것이다. 단단하면 이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壯水로서 火를 진정시키는 것을 모르고, 人蔘과 黃芪를 쓰는 것만 안다면 급하게 人蔘과 黃芪를 補陽하는데 투여할 것이니, 반대로 陽火가 더 왕성해져 金이 더욱 손상을 받게 되니 藥을 잘못 쓴 것이 된다. 이는 先後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³⁸⁾

陰虛咳嗽의 치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六味地黃類로서 眞陰으로 보하고 人蔘, 黃芪로서 肺를 補하여 金水を 相生

34) “夏月心火乘肺 輕則用麥門冬湯 重則用人蔘平肺散 若三焦實熱用涼膈散 虛熱用六君子湯 中焦實熱 竹葉石膏湯 虛熱用竹葉黃芪湯 下焦虛熱用六味丸” 《薛立齋醫學全書》，中國中醫藥出版社，1999, p.17.

35) 補北方 正所以瀉南方也 滋其陰 卽所以降火也 獨不視觀女子壯水之主 以制陽光乎 予相火論 及滋陰降火論中 已詳言黃柏知母之不宜用 與夫寒涼諸藥之害矣 “《醫貫》趙獻可, 도서출판정담, 1993, p.61.

36) “王節齋云 凡酒色過度 損傷肺腎眞陰者 不可服蔘芪 服之過多則死 蓋恐陽旺而陰消也 自此說行 而世之治陰虛咳嗽者 視蔘芪如砒毒 以黃柏知母爲靈丹 使患此証以服此藥者 百無一生 良可悲也 有能冥愆以不服藥者 反可綿延得活” 《醫貫》趙獻可, 도서출판정담, 1993, p.61.

37) “咳嗽之人 氣體虛弱者 用邪氣藥多不效 間有效者 亦必復作 若此者 並宜補益而嗽者愈 氣體厚者 或係外感 俱宜發散邪氣 破滯氣而嗽自寧 新咳嗽者 亦宜從實治之也 久咳嗽者 宜從虛治之也” 《景岳全書》，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61.

38) “蓋病本起于房勞太過 虧損眞陰 陰虛而火上 火上而刑金故咳 咳則金不能不傷矣 予先以壯水之主之藥 如六味地黃之類 補其眞陰 使水升而火降 隨卽以蔘芪救肺之品 以補腎之母 使金水相生而病易愈矣 世之用寒涼子 膚淺庸工 固不必齒間有知用蔘芪者 不知先壯水以鎮火 而遽投蔘芪以補陽 反使陽火愈旺 而金益受傷 豈藥之罪哉 此所謂不識先後著者也” 《醫貫》趙獻可, 도서출판정담, 1993, p.62.

하게 하면 病이 쉽게 낫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眞陰을 補한 후에 人蔘, 黃芪등을 써 補陽해야 하는데, 순서를 반대로 하면 病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였다. 先後를 잘 알고 써야 한다는 것이다.

《景岳全書》에 “內傷咳嗽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부에 水虧하고 상부로 火炎하여 火가 肺金을 태워 乾渴煩熱, 喉痛, 口瘡, 潮熱, 便結, 喜冷, 尺寸脈滑數 등의 증상이 생기는데, 이때는 부득이 淸火를 겸하여 그 水를 보존해야 하니 四陰煎이나 加減一陰煎, 人蔘固本丸으로 치료한다.”³⁹⁾고 말했다. 滋陰을 하되 火가 강할 경우에 淸火를 한다는 것이다.

《內科摘要》에 “오후에 咳嗽을 하는 경우에는 腎虛虧損, 火炎水涸에 속하여 津液이 들끓어 痰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眞臟의 질환이다. 반드시 六味地黃丸을 써서 壯腎水 滋化源을 위주로 하고 補中益氣湯으로 養脾土 生肺腎하여 돕는다. 이런 경우 만약 淸氣化痰의 藥을 쓰면 크게 잘 못된다.”⁴⁰⁾고 하였다. 薛己도 腎水不足으로 인한 咳嗽에 淸氣化痰의 藥을 쓰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壯腎水, 養脾肺하는 治법을 써야 함을 말하였다.

10. 陽虛의 咳嗽 治驗例

“오십 여세의 남자가 傷寒咳嗽의 病에 걸렸는데, 喉中에서 코고는 소리가 난다. 獨蔘湯을 주었더니 한번 먹고 코고는 소리가 없어지고, 두세 번 복용하니 咳嗽가 역시 점차 없어진다. 두세 근 복용하니 病이 온전히 나왔다. 이는 陽虛의 방안이다.”⁴¹⁾

한 남자의 傷寒咳嗽을 陽虛로 보고, 陽을 보하는 獨蔘湯으로 咳嗽을 치료한 治驗例이다.

다른 醫家の 陽虛咳嗽 治療의 예를 들어보면 《景岳全書》에 “元陽이 下虧하면 生氣가 퍼지지 못하여 中部에서 脾困, 上部에서 肺困이 생기면서 喘促, 痞滿, 痰涎嘔惡, 泄瀉畏寒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脈은 細弱하게 보이고 證은 虛寒하면서 咳嗽가 계속된다. 이런 證候들은 모두 咳嗽을 치료할 필요가 없이 단지 그 陽을 補하기만 하면 咳嗽은 저절로 그친다. 급히 右歸飲, 右歸丸, 八味地黃丸, 大補元煎, 六味回陽飲, 理中湯, 劫勞散 등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 시간을 지체하면 病이 깊어져 효과가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⁴²⁾라고 하였다.

《內科摘要》에서 “咳嗽面白, 鼻流清涕하여 이것을 脾肺虛에 外邪가 겸한 것으로 보고 補中益氣湯에 茯苓, 半夏, 五

味를 가하여 치료하였더니 나왔다. 또한 六君子에 川芎, 當歸를 사용하였더니 좋아졌다.”⁴³⁾ “咳嗽土痰하고, 手足이 때때로 冷하여, 내가 脾肺虛寒이라 보고 補中益氣湯에 炮姜을 가하여 사용하였더니 나왔다.”⁴⁴⁾라고 하였다.

11. 陰虛의 咳嗽 治驗例

“衍義에서 말한다. 갑작스런 咳嗽에 모든 약을 써봤는데 效과가 없을 때, 가르쳐 준 生料鹿茸丸, 大免絲子丸을 복용하였더니 과연 病이 나왔다. 病에 本과 標가 있어 갑작스런 咳嗽이라고 해서 신속하게 補해선 안 된다고 의심해선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나은 것 역시 빨리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陰虛의 방안이다.”⁴⁵⁾

갑작스런 咳嗽가 모두 實症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咳嗽라도 陰虛로 잘 진단하고 신속하게 補陰之劑를 사용하여서 病이 쉽게 나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景岳全書》에 “勞損咳嗽의 치료는 반드시 壯水滋陰을 위주로 해야 하니, 肺氣가 충족되면 咳嗽은 점차 낮게 된다고 하였다. 一陰煎, 左歸飲, 瓊玉膏, 左歸丸, 六味地黃丸 등에서 선택하여 써야 한다.”⁴⁶⁾라고 陰虛咳嗽의 治療방법을 말하였다.

《內科摘要》에서 “매년 봄이 되면 咳嗽하니 蔘蘇飲에 黃

39) “內傷咳嗽 凡水虧於下 火炎於上以致火燥肺金 而爲乾渴煩熱 喉痛口瘡 潮熱便結 喜冷 尺寸滑數等證 則不得不兼淸火 以存其水 宜四陰煎 或加減一陰煎人蔘固本丸主之” 《景岳全書》, 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4.

40) “午後咳者 屬腎氣虧損 火炎水涸 或津液湧而爲痰者 乃眞臟爲患也 須用六味地黃丸壯腎水滋化源爲主 以補中益氣湯養脾土 生肺腎爲控設用淸氣化痰則誤矣”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

41) “一男子年五十餘歲 病傷寒咳嗽 喉中聲如啞 與獨蔘湯 一服而胸聲除 至二三服而咳嗽亦漸退 服二三斤病始全愈 此陽虛之案” 《醫貫》趙獻可, 도서출판정담, 1993, p.62.

42) “元陽下虧 生氣不布 以致脾困於中 肺困於上 而爲喘促 爲痞滿 爲痰涎嘔惡 爲泄瀉畏寒 凡脈見細弱 證見虛寒而咳嗽不已者 此等證候 皆不必治咳 但補其陽而嗽自止 如右歸飲右歸丸八味地黃丸大補元煎六味回陽飲理中湯劫勞散之類皆當隨宜速用 不得因循 以致汲深無及也” 《景岳全書》, 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4.

43) “咳嗽面白 鼻流清涕 此脾肺虛而兼外邪 用補中益氣可茯苓半夏五味治之而愈 又用六君芎當之類而安”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

44) “咳嗽土痰 手足時冷 余以爲脾肺虛寒 用補中益氣可炮姜而愈”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

45) “衍義云 有暴嗽服諸藥不效 或教之進生料鹿茸丸大免絲子丸方愈 有本有標 却不可以其暴嗽 而疑驟補之非 所以易愈者 亦覺之早故也 此陰虛之案” 《醫貫》趙獻可, 도서출판정담, 1993, p.62.

46) “勞損咳嗽 必當以壯水滋陰爲主 庶肺氣得充 咳可漸愈 宜一陰煎左歸飲瓊玉膏左歸丸六味地黃丸之類擇而用之” 《景岳全書》, 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3.

芩, 黃蓮, 桑皮, 杏仁을 가하여 치료하니 나왔다. 다음 봄에 다시 병을 얻어 前藥을 복용하게 하였더니 咳嗽가 더욱 심해졌다. 후두가 막히고, 脈은 左尺이 洪數하고 無力하다. 내가 말하길 이것은 腎經陰火가 肺金을 克하는 것으로 당연히 化源을 滋養해야 한다. 따라서 六味丸에 麥門, 五味, 炒梔를 복용하고 補中益氣湯을 주었더니 나왔다.”⁴⁷⁾“陰虛하여 환자가 咳嗽하는데 清氣化痰丸과 二陳湯에 黃芩, 黃蓮을 복용하니 痰이 더욱 심해진다. 四物湯에 黃柏, 知母, 玄蓼를 사용하니 腹脹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右關脈이 浮弦하고 左尺脈이 洪大하다. 이것은 脾土가 肺金을 생하지 못하고, 陰火가 또한 金을 克하였으므로 당연히 근원을 滋養해야 한다. 아침에 補中益氣湯에 山茱, 麥門, 五味를 복용하고, 저녁에 六味地黃에 五味子를 복용하는 것을 삼개월하면 그 병이 나올 것이다.”⁴⁸⁾라고 말하였다.

12. 乾咳의 치료방법

“丹溪가 말하기를 마른 咳嗽은 최고로 고치기 어렵다. 이는 火鬱系統의 증상이다. 그 火로 인해 痰鬱도 있어 邪氣가 중간에 있게 된다. 逍遙散을 사용해서 鬱을 풀고 補陰之劑를 사용하면 낫는다.”⁴⁹⁾

乾咳를 치료함에 먼저 解鬱하고, 근본치료는 補陰之劑를 사용하여 腎水를 補하는 治법을 말하였다.

위에서 丹溪가 말한 乾咳治療는 《金匱鉤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乾咳嗽은 難治이다. 이는 火鬱로 인한 것이니 痰이 鬱滯하여 火가 안에 있으면 苦桔梗으로 소통시키고, 아래에 있으면 補陰降火한다. 낫지 않으면 勞가 되니 倒倉하는 것이 좋다. 이 證은 뜻을 이루지 못한 者에 있다. 咳嗽하고 脇痛이 있으면 마땅히 肝氣를 소통시켜야 하니, 靑皮등을 쓰고 二陳湯에 南星, 香附, 靑黛, 薑汁을 가한다.”⁵⁰⁾라고 하였다.

하지만 張景岳은 단계의 苦桔梗과 倒倉의 治법을 비판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근심과 생각으로 생긴 內傷이지 어떻게 痰火의 병이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苦桔과 倒倉法으로 공격할 수 있는가?⁵¹⁾”라고 하였다. 그리고 治법은 “肺중에 津液不足으로 말라서 생기니, 內傷虧損과 분명히 관계된다. 無火하면 肺虛로 補氣하면 生精할 수 있고, 有火하면 補眞陰해야 하니 壯水하면 制火하게 된다.”⁵²⁾라고 하였다. 乾咳에 대한 景岳의 治법은 無火에는 補氣, 有火에는 補眞陰하면 된다는 것이다.

III. 考察

1. 脾土와 腎水를 補하는 咳嗽治療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咳嗽를 치료하는데 標를 치료해서는 안 되고 本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形氣와 病氣가 虛한 자의 治療원칙은 虛則補其母로서 補脾하여 肺를 實하게 함으로서 邪氣의 침입을 막는다. 둘째, 腎虛로 納氣하지 못할 때에 먼저 六味를 써서 水의 근본을 實하게하고, 다시 四君子湯으로 脾를 補하여 水를 다스려야 한다. 셋째, 脾土虛로 인해 水가 넘쳐 痰이 된 咳嗽에 겸하여 水冷金寒하면 반드시 補中하고 六味나 八味를 써서 水를 歸元으로 이끄는 方法을 사용한다. 趙獻可는 이러한 것을 咳嗽를 치료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인식하였다.

2. 寒冷한 藥을 쓰는 清火와 清金을 배제한 治법을 사용하였다.

趙獻可의 특징적인 咳嗽치료는 寒冷藥을 사용한 清火와 清金의 治법을 배제한데 있다. 많은 醫家들이 咳嗽의 원인이 된 根本를 치료하면서 겸하여 火를 내리기 위해 寒冷藥으로 清金, 清火의 治법을 사용하였는데, 趙獻可는 陰을 滋養하면 火는 저절로 내려가는데 寒冷한 藥으로 清金, 清火의 治법을 사용하여 병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清金, 清火의 治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3. 火가 있는 咳嗽라도 眞陰을 補한 후라면 陽을 補해도 된다.

咳嗽에 火가 있을 때 陽旺을 두려워하여 人蔘, 黃芪를 쓰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다. 陽이 旺盛해짐을 두려워하기보다

47) “每至春咳嗽 用蔘蘇飲加芩蓮桑杏乃愈 乙巳春患之 用前藥益甚 更加喉暗就治 左尺脈洪數而無力 余曰 此是腎經陰火刑克肺金 當滋化源 遂以六味丸料加麥門五味炒梔及補中益氣湯而愈”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

48) “陰虛患咳嗽服清氣化痰丸 及二陳芩蓮之類 痰益甚用四物黃柏知母玄蓼之類 腹脹咽啞 右關脈浮弦 左尺脈洪大 余曰 脾土即不能生肺金 陰火又從而克之 當滋化源 朝用補中益氣加山茱麥門五味 夕用六味地黃加五味子 三月余 喜其慎疾得愈”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

49) “有一等乾咳嗽者 丹溪云 乾咳嗽極難治 此系火鬱之証 乃痰鬱其火邪在中 用逍遙散以開之 下用補陰之劑而愈” 《醫貫》趙獻可, 도서출판경담, 1993, p.62.

50) “乾咳嗽者難治 此係火鬱之證 乃火鬱火邪在中 用苦桔梗以開之 下用補陰降火 不已則成勞 倒倉好 此證不得志者有之 嗽而脇痛 宜疎肝氣用靑皮等 方在後 二陳湯內加南星香附靑黛薑汁” 《金匱鉤玄》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19.

51) “夫既云不得志 則其優思內傷 豈痰火病也 又豈苦桔倒倉所宜攻也” 《景岳全書》, 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5.

52) “蓋乾咳嗽者 以肺中津液不足 枯潤而然 此明係內傷虧損 無火者 止因肺虛故必先補氣自能生精 有火者 須補眞陰 故必先壯水 自能制火” 《景岳全書》, 張介賓, 한미의학, 2006 p.856.

陰이 없어짐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眞陰을 補한 후라면 人蔘, 黃芪로 陽을 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치료 순서를 반대로 하면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므로 眞陰을 補하고 陽을 補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IV. 結論

趙獻可는 脾土와 腎水를 補하는 咳嗽治療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咳嗽는 腎水가 虛하여 火가 위로 올라가 金을 克하거나, 脾土虛로 인해 水가 넘쳐 痰이 만들어져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 치료에는 앞의 경우는 腎水를 補하고, 뒤의 경우는 脾土를 補한다고 하였다.

그는 咳嗽症 뿐만 아니라 血症, 痰症, 喘症의 論治에 있어서도 腎命水火를 중시하였다. 대다수의 질병이 腎水가 虛하여 火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命門의 火가 衰하여 水를 化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인해 생긴다고 보았다. 藥을 쓰는 데 있어서도 寒冷한 藥으로 克伐하는 것에 반대하고 六味丸, 八味丸을 넓게 운용함으로써 溫補學派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趙獻可는 腎命門이 인체에서 차지하는 意義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六味丸, 八味丸만을 주요 처방으로 하고 이에 가감하여 모든 증을 치료하여 腎命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V. 參考文獻

- 1) 李珩九, 《東醫肺系內科學》, 도서출판 아트동방, 1996.
- 2) 金吟勳, 《咳嗽의 原因에 대한 文獻的 考察》, 동서의학, 1988, vol.13 no.2.
- 3) 韓鏞徹, 《臨床 呼吸器學》, 一潮閣, 1991.
- 4) 陣大舜, 《各家學說中國篇》, 대성의학사, 2004.
- 5) 趙獻可 《醫貫》 도서출판정담, 1993.
- 6) 劉河間 《素問病機氣宜保命集》 河間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8.
- 7) 張子和 《儒門事親》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1995.
- 8) 張介賓 《景岳全書》, 한미의학, 2006.

- 9) 朱震亨 《丹溪心法》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 10) 朱震亨 《丹溪手鏡卷之下》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 11) 張介賓 《仲景全書》, 대성문화사, 1984.
- 12) 薛己 《內科摘要》 薛立齋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13) 劉河間 《保童必要》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 14) 朱震亨 《金匱鉤玄》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 15) 朴東一 《咳嗽의 原因에 대한 文獻的 考察》 東義大學校東義論集 第22輯 自然科學篇 1995.
- 16) 金碕基 《外感咳嗽의 東西醫學的 比較에 관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2.
- 17) 崔善燁 《外感으로 인한 咳嗽의 原因, 症狀, 治療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1.
- 18) 鄭錫基 《東醫寶鑑·咳嗽門의 學術적 특징에 대한 고찰》 경희대 대학원, 2007.
- 19) 李東熙 《東洋醫學에 있어서 咳嗽에 관한 醫史學的 研究》 경희대 대학원, 1968.
- 20) 高泳商 《金匱要略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并治》, 대전대학교, 2004.
- 21) 孫志宇 《金元四大家的 咳嗽 대한 文獻的 考察》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6.
- 22) 崔錫鳳 《咳嗽의 病因病理에 관한 文獻的 考察》, 경산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83.
- 23) 朴重陽 《咳嗽의 辨證論治에 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6.
- 24) 李相殷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7.